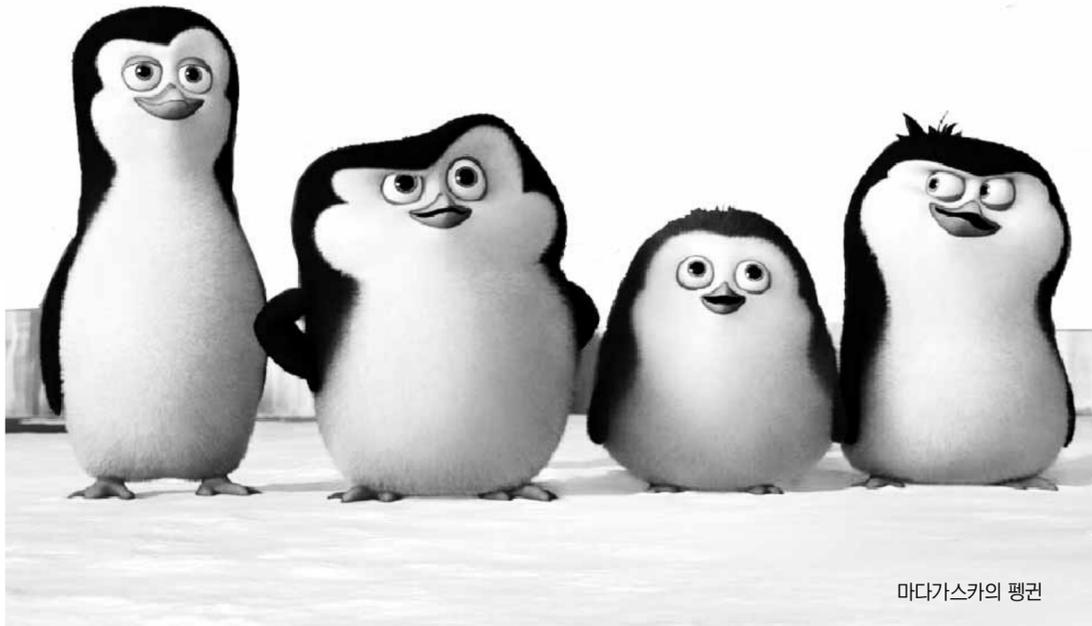


훈훈한 가족영화 볼까

화끈한 액션 빠져볼까



극장가 최대 대목인 연말 연시를 맞아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시대 아버지들이 이야기를 다룬 '국제시장'이 상순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류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상의원'을 비롯,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도 눈길을 끈다. 사진 왼쪽부터 '국제시장'·'기술자들'·'호빗: 다섯 군대 전투'·'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상의원'.



마다가스카의 펭귄

▲국제시장

'해운대'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윤재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개봉 12일만에 400만 명을 돌파하며 연말연시 최대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평생 단 한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아버지 덕수를 중심으로 눈물 흘리며 힘들었던 그때 그 시절, 오직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우리들의 아버지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황정민·정진영·김윤진·오달수 등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과 웃음과 감동이 조화를 이룬 스토리, 대한민국 현대사를 생생하게 재현해낸 풍성한 볼거리가 인상적이다. 당시 시대상 재현을 위해 순제작비만 149억원(전체 180억원)이 든 대작이다. <12세 관람가>

▲기술자들

대세 배우 김우빈이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명석한 두뇌를 지닌 금고털이범이자 모든 위조에 능한 멀티플레이어 지력이 절친한 형이자 인력 조달 전문 바람잡이 구인, 업계 최연소 해커 종배와 함께 인천세관에 숨긴 비자금 1500억원을 40분 안에 타는 작전을 펼치는 내용이다.

임창정과 최다니엘이 출연했던 '공모자들'로 청룡영화제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던 김홍선 감독 작품으로 고창석·이현우·조운희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15세 관람가>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워낭소리'를 제치고 한국 독립 영화 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작품이다. 76년간 해로운 노부부 사랑 얘기가 세대를 뛰어넘어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하며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해남 출신

진모영 감독 작품으로 누적 관객은 300만 명을 넘어섰다. 강원도 횡성에 살고 있는 89세 소녀감성 강계열 할머니, 98세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는 어딜 가든 고운 빛깔의 커튼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이다. 장성한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귀여워하던 강아지 '꼬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꼬마를 묻고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할아버지의 기억은 점점 약해져간다. <전체 관람가>

▲호빗: 다섯 군대 전투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다.

J.R.R 톨킨의 중간계 세상을 스크린에 부활시킨 피터 잭슨 감독이 영화화를 위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어진 16년간의 여정을 마감한다.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5편의 시리즈가 모두 201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난쟁이족, 인간 군대, 엘프 군대, 오크 군대 그리고 마지막 열쇠를 쥐는 군대까지 시리즈를 관통하는 캐릭터들이 총출동해 중간계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전투를 시작한다. 마틴 프리먼, 올랜도 블룸, 케이트 블란쳇 등이 출연한다. <12세 관람가>

▲상의원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과 궁중 재화를 만드는 기관 상의원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랑과 질투, 욕망의 감정들을 섬세하게 그린 영화다.

30년 동안 왕실의 옷을 지어온 상의원의 어점장 조동석은 이제 6개월만 채우면 곧 양반이 된다. 어느 날 왕의 옷이 불타자 쫓겨서 옷 잘 짓기로 소문난 이공진이 입궐하게 되면서 둘 사이에 경쟁이 시작된다.

한석규를 비롯해 고수, 박신혜, 유연석 등 스타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100억원의 제작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 화려한 의상이 볼거리다. <15세 관람가>

▲테이큰 3
리암 니슨의 액션 연기가 일품인 '테이큰'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로 2편의 올리비에 메가톤 감독이 그대로 메가폰을 잡았다.

전 부인 레니의 집을 찾은 브라이언 밀스는 살해당한 아내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사태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경찰이 들이닥치고 브라이언은 살인범으로 체포되기 직전 탈출한다.

쫓아야 할 대상도, 쫓기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 FBI, CIA까지 모든 병력이 총동원되어 모두가 그를 쫓는다. 이제 브라이언 밀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지켜내는 것이다. <15세 관람가>

▲마다가스카의 펭귄
악동 펭귄들의 짜릿한 모험을 그린 3D 애니메이션이다.

넘치는 유머, 감쪽 같은 위장술, 목소리 나는 브레인... 날 때부터 남달랐던 악동 펭귄 스키퍼, 코알스키, 리코, 프라이빗 앞에 어느날 복수심에 불

타는 문어박사 옥토프레인이 나타난다. 그의 거대한 음모를 알게 된 펭귄 4총사는 비밀 조직 '노스워드'와 함께 세상을 구할 사상 최대의 작전을 펼친다. 베네딕트 컴버배치, 존 말코비치 등 최고의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전체 관람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의 인기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어느 순간 아빠와 함께 집이 사라져 버리자 지소는 동생 지석, 엄마와 함께 미니 붕고차에서 지낸다. 힘든 생활이 한달을 넘기자 지소는 집을 구하기 위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계획한다. 개를 잃어버려도 금방 다시 사지 않을 어중간한 부자집, 들고 뛰기에 적당한 어중간한 크기를 고려해 훔칠 개를 물색하던 지소는 마을 레스토랑 마르셀의 주인인 노부인의 개 '윌리'를 목표로 정한다. 김혜자와 최민수·강혜정 등이 이레 등 아역 배우들과 호흡을 맞춘다. <전체 관람가>

▲테너-리리코 스피노
아시아 오페라 역사상 100년에 한번 나올만한 목소리로 유럽 오페라 스타였던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그린 영화다. 제목 '리리코 스피노'는 서정적인 섬세함과 심장을 관통하는 듯, 힘 있는 목소리를 함께 지닌 테너에게 주어지는 찬사다.

새 오페라 무대를 준비하던 배재철은 갑상선암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되고 수술 과정에서 성대 신경이 끊기면서 노래는커녕 말하기도 버거운 상황에 이른다. '심야의 FM', '걸스카웃'의 김상만 감독의 메가폰을 잡았으며 유지태·차예련, 일본 배우 이세야 유스케 등이 함께 출연한다. <12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